

‘쉬었음’ 22만명·첫 취업까지 11.3개월...청년고용 위축

한국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개선 과제 분석

고용률 23개월째 하락 쉬었음 청년 3년 연속 증가 고학력 중심 늘어...신규채용 33.6%→25.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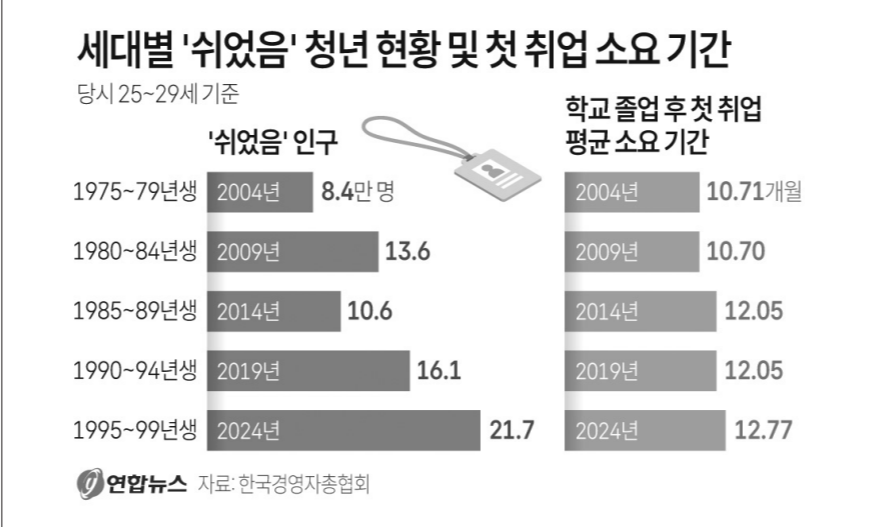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20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이 늘고,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길어지면서 청년 고용이 구조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한국경제기자총협회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 고용률은 23개월 연속(2024년 5월~2026년 3월) 하락했다. 반면 ‘쉬었음’ 청년은 3년째 증가하고 있는

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대졸 이상 고학력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 보면 차이는 더 크다. 1995~1999년생의 쉬었음 인구는 21만 7000명으로, 1975~1979년생(8만 4000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최근 세대로 올수록 취업 대신 쉬는 청년이 크게 늘고 있는 셈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은 큰 변화가 없지만, 대졸 이상은 계속 늘고 있다.



2021년 14만9000명인 대졸 이상 쉬었음 청년은 2025년 17만9000명까지 증가했다.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다. 청년층의 첫 취업 소요 기간은 2021년 10.1개월에서 2025년 11.3개월로 늘었다. 고졸 이하의 14.2개월에서 16.5개월로, 대졸 이상의 7.7개월에서 8.8개월로 각각 증가했다.

다. 최근 세대일수록 취업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기업 채용 구조도 청년에게 불리해졌다. 신규 채용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3.6%에서 2025년 25.2%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일자리 mismatch'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40% 이상 벌어지면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몰리고,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년 60세 제도 확립 이후 고령층 고용이 늘어난 반면 청년 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점 역시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총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석 경총 청년ESG팀장은 "최근 청년고용률이 23개월 연속 줄어들고, 지난해 20~30대 쉬었음 청년이 70만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고용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쉬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고,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 mismatch를 해소하고, 미래에 일 경험 사업 등 미취업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청년고용 위기 상황에서는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정 청년연장 논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작년 코스피 상장사 566곳 35조 현금배당 '역대 최고'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사들이 지난해 결산을 통해 주주들에게 돌려준 현금배당금이 전년보다 4조7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법인의 결산 현금배당 실적,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등을 분석한 결과 566개사의 총 배당금은 35조1000억원으로 전년도의 30조3000억원 대비 15.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월 결산법인 총 799곳 중 71%가 결산 현금배당을 실시했으며 이 중에서는 약 81%가 5년 이상 배당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증권시장의 보통주와 우선주 평균 시가배당률은 각각 2.63%, 3.06%로 집계됐다.

이는 증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국고채 수익률(2.43%)은 상회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업종별 평균 시가배당률은 금융(3.70%), 전기·가스(3.67%), 건설(3.36%)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배당법인의 배당성향은 39.83%로 전년(34.74%) 대비 5.09%p 증가해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거래소는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12월 결산법인 314개사의 현금배당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304개사(96.8%)가 배당을 실시했고, 배당금은 총 30조8000억원으로 작년 현금 배당 총액의 87.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고배당 공시를 진행한 결산법인 255개사의 배당금은 22조7000억원으로 현금 배당 총액의 64.9%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중에서는 666곳이 총 3조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배당법인 수는 2024년(612곳)보다 8.8%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배당금 규모 또한 전년(2조3130억원) 대비 34.8% 늘어 2조원대를 벗어나 3조원대에 진입했다.

5년 연속 결산배당을 실시한 법인은 432곳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코스닥 배당법인의 평균 배당성향은 37.4%, 평균 시가배당률은 2.637%로 각각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작년 평균시가배당률이 상승하고 국고채 수익률은 하락하면서, 평균 시가배당률이 2021년 이후 4년 만에 국고채 수익률을 상회하기도 했다.

배당을 실시한 법인의 지난해 평균 주가 수익률은 26.2%로 코스닥 지수의 연간 등락률(36.5%)보다 낮았다. 다만 이 중 5년 연속 배당법인의 5년간 주가 상승률은 18.5%로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 등락률(-4.4%)을 초과했다.

연합뉴스



홍문표 aT 사장, 뉴욕서 'K-푸드 영토 확장' 현장 행보. 홍문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은 지난 19일 헛드 호스피탈 리터 이기현 대표와 돼지고기로 뉴욕 외식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육동식 셰프, 미슐랭 스타 한식당 주아(JUA)의 김호영 셰프 등 K-푸드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 식문화 위상을 높이고 있는 주역들을 만나 K-푸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체계 본격 가동

전담팀·동별 접수창구 운영...시민 편의 강화 시민 70% 1인당 15만원...최대 60만원 지급

광주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담팀(TF)'을 구성,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담팀은 지원금 지급의 전 과정을 총괄한다. 주요 업무로는 접수창구 운영과 선별카드 발급 관리, 대상자 적격 여부 판정, 이의신청 처리 등이 포함된다.

광주시는 특히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현장 대응체제도 강화한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50만원을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등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에는 15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여부는 20일부터 국민복지 사정

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2단계로 진행된다. 1차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2차 접수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가구와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 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며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1차 지급의 경우 금요일인 다음달 1일이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사람과 함께 5-0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홈페이지 및 앱, 카카오톡·페이, 토스, 케이뱅크,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해당 은행 영업점, 선별카드 수령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사용처는 광주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규모 업종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병원,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희·사행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오영걸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코스피, 휴전 종료 긴장감 속 소폭 상승 SK하이닉스 장중 신고가...코스닥 7거래일 연속 상승

코스피가 20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종료 소식을 앞두고 긴장감 속에도 소폭 상승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7.17p(0.44%) 오른 6219.09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2.00p(0.36%) 상승한 6213.92로 출발해 잠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나 오후세로 돌아섰다. 장중에는 한때 6278.36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6.3원 내린 1477.2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1815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으며, 개인과 외국인도 각각 2774억원, 1629억원 매도우위를 보였다.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갔다.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는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오는 23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증시는 장중 상승세로 돌아섰다. SK하이닉스(3.37%)는 장중 117만 5000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81p(0.41%) 상승한 1174.85에 거래를 마치고 지난 10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전남바이오 '돌의' 기능성식품 시장 도전 중기부 사업 선정...비티씨와 공정 표준화·인체시험 진행

전남바이오진흥원이 지역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선정되며 기능성 소재 개발과 사업화 기반을 확보했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비티씨와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17억 원이 투입되며, 돌의 소재를 활용한 추출 공정 표준화와 기능성 효능 평가, 인체적용시험 등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돌의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해 동물사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연구개발은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진행된다. 비티씨는 추출 공정 표준화와 지표성분 분석, 인체적용

시험을 맡고, 전남바이오진흥원 시용 합작원실은 세포 및 동물 실험을 통한 체지방 감소 기능성 검증을 수행한다. 셀텍은 동물사료 개발을 담당하며, 전북대학교는 목적동물에 대상으로 면역 활성 평가를 2년간 진행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갖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신청 자료로 활용한다. 이는 기능성식품과 반려동물 사료 제품 개발을 추진해 시장 확장성과 사업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능성 소재 국산화와 함께 제품 경쟁력 강화, 원가 절감, 신규 시장 진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바이오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국민연금, 집배원이 집까지 직접 배달간다 우분, 7월부터 국민연금 현금배달 시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은 우정사업본부와 고령수급자 대상 '국민연금 안심배달서비스' 시범사업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금융기관이 멀어 방면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강원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내 19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1961년 이전 출생)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집배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연금을 직접 전달한다. 이 과정에

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도 살피게 된다.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은 가까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국민연금을 집에서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지구를 위해 10분만 불을 꺼주세요" 광주시, 내일 오후 8시 '지구의날 소등'

광주시는 '지구의 날'인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전등을 끄는 '지구의 날 소등 행사'를 실시한다.

지구의 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20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대규모 자연보호 캠페인에서 비롯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시청과 각 구청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온도 낮추기 우수 아파트 조성사업'에 참여 중인 공동주택 등 100여곳이 동참해 일제히 불을 끄고 지구에 휴식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지구를 위해 함께 불 꺼

요! 지.구.하러(지구 구하러) 끄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공공기관, 아파트, 일반 가정, 아파트, 상가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분위기를 확산에 나선다.

이번 소등 행사는 짧은 시간이지만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나방촌추후대기정책과장은 "10분간의 소등은 짧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지구를 지키는 작은 행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